

# 火災住居址를 통해 본 中期 無文土器時代 社會의 性格

宋 滿 榮\*

## 목 차

- I. 머리말
- II. 火災住居址와 火災類型의 分類
- III. 無文土器時代 火災住居址의 樣相
- IV. 中期 無文土器時代 火災住居址의 增加와 그 意味
- V. 맺음말

## I. 머리말

中期 無文土器時代 社會變化의 큰 특징이라 한다면, 이 당시 형성된 聚落 내지 聚落으로 대표되는 集團間的 緊張關係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일찍이 前期 無文土器時代 後半代부터 시작되었는데, 聚落의 發展과 더불어 본격화되어 나가면서, 집단내부에 있어서는 戰鬥指揮者와 같은 有力個人을 出現시킴으로써 계층화된 사회로 전개해 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외부로는 각각의 집단들이 정복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좀 더 진보된 사회조직체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無文土器時代 中期 以後로 고조된 긴장관계가 어떠한 動因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전개해 나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시기의 社會變化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이 시기에 과연 무력충돌로 표현되는 긴장관계가 어떠한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그 흔적을 찾아내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扶餘 松菊里遺蹟과 蔚州 檢丹里遺蹟에서 발견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環濠 集落과 居昌 大也里遺蹟의 支石墓에서 출토된 細長形鏃과 같은 殺傷武器를 이러한 긴장관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기도 하며,<sup>1)</sup> 松菊里型 圓形住居址가 時限的이며 移動性이 강한 성

\* 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

1) 鄭澄元, 1991. 「初期農耕遺跡立地條件」 『韓日交涉의 考古學』.

격의 住居址라는 측면에서 農耕生産보다는 戰亂과 같은 집단간의 갈등이 이 당시 松菊里型 圓形住居址의 등장 및 입지조건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2)</sup> 최근에는 松菊里遺蹟 54地區의 발굴결과를 토대로 火災住居址의 비교를 통해 長方形住居址人과 圓形住居址人과의 분쟁을 상정하는 견해도 제시되었다.<sup>3)</sup>

필자는 당시의 긴장관계가 무력충돌이라는 수단으로 해소되어 나갔다고 한다면, 각 취락 내에서의 火災住居址가 집단간의 긴장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적절한 고고학자료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無文土器時代 火災住居址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中期 社會를 특징 지우는 집단간의 알력관계의 일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II. 火災住居址와 火災類型의 分類

종래의 住居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부구조의 복원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지향되어, 주로 住居址의 축조 및 사용 위주의 관찰에 집중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住居址 폐기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sup>4)</sup> 이러한 경향은 火災住居址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각의 火災住居址들이 어떠한 火災類型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火災로 인해 폐기된 住居址인지 발굴보고서로써는 관별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住居址가 火災로 인해 폐기되는 경우에는 住居址 내부에서 상부 구조물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목탄편이 발견되며, 또한 목탄편이 다량으로 혼입된 내부 퇴적층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탄편 이외에도 지붕 또는 벽체에 발랐다고 생각되는 점토가 住居址 火災時, 불에 타 소토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토는 바닥 전면에 넓게 깔리는 경우, 住居址 벽면 어깨에서 내부 바닥에 걸쳐 퇴적되는 경우, 그리고 목탄과 함께 내부 퇴적층에 혼입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住居址 내부에서의 목탄 및 소토의 유무, 존재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安在晧,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11, 30~32.

3) 金吉植, 1994. 「扶餘 松菊里遺蹟 調査概要와 成果」,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4) ① 金正基, 1984. 「住居址」, 『韓國史』 1 韓國의 先史文化, 國史編纂委員會, 171~195.

② 임영진, 1984. 「韓國竪穴住居址小考-構造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29, 177~233.

③ 윤기준, 1985.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집터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32.

④ 崔夢龍, 1983. 「住居生活」, 『韓國史論』 13 (國史編纂委員會) 152~168.

⑤ 金正基, 1996. 「青銅器 및 初期鐵器時代의 竪穴住居」, 『한국고고학보』 34, 29~81.

- A1 바닥면의 탄화목재
- A2 내부 퇴적층에 혼입된 목탄편
- B1 住居址 바닥 전면에 깔린 소토부
- B2 住居址 벽체 어깨에서 바닥에 걸친 소토부
- B3 내부 퇴적층을 구성하는 소토층

이러한 火災의 흔적물은 住居址 내부에서 한가지 요소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이상 확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住居址 내부에서 목탄 내지 소토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모두 火災로 인해 폐기된 住居址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령 住居址 벽체 및 지붕에 점토를 바르고 불처리를 하여 상부구조를 견고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B유형의 흔적만이 보이는 住居址를 화재주거지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듯 싶다. 또한 A2와 같이 내부 퇴적층에 목탄편이 혼입된 경우도 住居址 폐기이후에 다른 구조물과 관련된 목탄편이 쓸려 들어와 퇴적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火災에 의한 住居址 폐기의 기준은 住居址 바닥면에 깔린 탄화목재가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A2유형과 B유형의 흔적이 동시에 보이는 住居址 역시 火災住居址로 판단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였을때, 남한지방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가운데 조사내용이 알려진 총 396기의 住居址를 대상으로 할 경우, 39.6%에 해당하는 157基의 住居址가 火災住居址이다(表 1).

〈表 1〉 火災住居址明細表

(유물량: ◎ 많음, ○ 보통, ◦ 적음)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량	시기
1	강원영동	강릉포남동주거지	×			◎	중기
2	강원영동	명주방내리2호주거지	○	외탄형		◎	중기
3	강원영동	명주방내리1호주거지	○	전탄형	바닥소토부	◎	중기
4	강원영동	명주방내리4호주거지	○	전탄형		○	중기
5	강원영동	명주방내리3호주거지	○	외탄형		◦	중기
6	강원영동	속초조양동4호주거지	×			◎	전기
7	강원영동	속초조양동5호주거지	×			◎	전기
8	강원영동	속초조양동7호주거지	×			◎	전기
9	강원영동	속초조양동2호주거지	×			○	전기
10	강원영동	속초조양동3호주거지	○	외탄형		○	전기
11	강원영동	속초조양동1호주거지	○	외탄형		◦	전기
12	강원영동	양양포월리1호주거지	×			◎	중기
13	강원영동	양양포월리4호주거지	×		소토층	◎	중기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기
14	강원영동	양양포월리5호주거지	○	외탄형	바닥소토층	○	중기
15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1호주거지	×			◎	전기
16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2호주거지	×			◎	전기
17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4호주거지	×			◎	전기
18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5호주거지	×			○	전기
19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7호주거지	×			○	전기
20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3호주거지	×			○	전기
21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2호주거지	×			○	전기
22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3호주거지	×			○	전기
23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4호주거지	×			○	전기
24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6호주거지	×			○	전기
25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9호주거지	○	외탄형		○	전기
26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호주거지	○	?		○	전기
27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0호주거지	○	?		○	전기
28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5호주거지	○	?		○	전기
29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16호주거지	○	전탄형		○	전기
30	남한강유역	여주혼암리8호주거지	○	전탄형		○	전기
31	남한강유역	제원계산리b1호주거지	×			○	중기
32	남한강유역	제원계산리b2호주거지	×			○	중기
33	남한강유역	제원계산리b3호주거지	×			○	중기
34	남한강유역	제원광의리a1호주거지	×			○	중기
35	남한강유역	제원광의리a2호주거지	×			○	중기
36	남한강유역	제원양평리b지구주거지	×			○	중기
37	남한강유역	중원지동리a1호주거지	×			○	중기
38	남한강유역	중원지동리a2호주거지	×			○	중기
39	남한강유역	중원지동리a3호주거지	×			○	중기
40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40-1)	×			○	?
41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서울대43)	×			○	?
42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14-1)	×			○	?
43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21-1)	×			○	?
44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11)	×			○	?
45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16-2)	×			○	?
46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17)	×			○	?
47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18-1)	×			○	?
48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26)	×		소토부	○	?
49	보성강유역	송주대곡리(광박3-1)	×			○	?

번호	지 역	주 거 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 기
50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32-1)	×			○	?
51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34)	×			○	?
52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36)	×			○	?
53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38-1)	×			○	?
54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40)	×			○	?
55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8)	×			○	?
56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12))	×			○	?
57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16))	×			○	?
58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1))	×			○	?
59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7))	×			○	?
60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7))	×			○	?
61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18)	×			○	?
62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30)	×			○	?
63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33)	×			○	?
64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34)	×			○	?
65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37)	×			○	?
66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46)	×			○	?
67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48)	×			○	?
68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51)	×			○	?
69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9)	×			○	?
70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5)	×			○	전기
71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5)	×			○	전기
72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	×			○	전기
73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2)	×			○	전기
74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22)	×			○	전기
75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27)	×			○	전기
76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39)	×			○	전기
77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9)	×			○	전기
78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19))	×			○	전기
79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	×			○	전기
80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15)	×			○	전기
81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	×			○	전기
82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0)	×			○	전기
83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2)	×			○	전기
84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9)	×			○	전기
85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38)	×			○	전기

번호	지 역	주 거 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 기
86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39)	×			○	전기
87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43)	×			○	중기
88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4)	×			○	중기
89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6)	×			○	중기
90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29)	×			○	중기
91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33-1)	×			○	중기
92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34-1)	×			○	중기
93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37)	×			○	중기
94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10)	×			○	중기
95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52)	×			○	중기
96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53)	×			○	중기
97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8)	×			○	중기
98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28)	○	?	소토층	○	중기
99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5)	○	?		○	중기
100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5))	○	?		○	중기
101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17)	○	?	소토층	○	중기
102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서울대58)	○	?	소토덩어리	○	중기
103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2)	○	내탄형		○	중기
104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8)	○	소탄형		○	중기
105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0)	○	외탄형		○	중기
106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13)	○	외탄형		○	중기
107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7)	○	외탄형		○	중기
108	보성강유역	승주대곡리(광박48)	○	전탄형		○	중기
109	보성강유역	승주북교리2호주거지	×			○	?
110	보성강유역	승주북교리1호주거지	○	전탄형	소토덩어리	○	중기
111	보성강유역	승주우산리2호주거지	×			○	전기
112	보성강유역	승주우산리3호주거지	○	내탄형		○	?
113	보성강유역	승주한실A-4호주거지	×			○	?
114	보성강유역	승주한실A-5호주거지	×			○	중기
115	북한강유역	춘천신매리2호주거지	×			○	중기
116	북한강유역	춘천신매리1호주거지	○	외탄형		○	중기
117	서남부지방	광산원산리주거지	×			○	중기
118	서남부지방	광주송암동주거지	×			○	중기
119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6호	×			◎	중기
120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8호	×			◎	중기
121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0-2호	×			○	중기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기
122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0-3호	×			○	중기
123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9호	×			○	중기
124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1호	×			○	중기
125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5호	×			○	중기
126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6호	×			○	중기
127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17-1호	×			○	중기
128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0-1호	×			○	중기
129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0-4호	×			○	중기
130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6호	×			○	중기
131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7호	×			○	중기
132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8호	×			○	중기
133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4호	×			○	중기
134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A호	×			○	중기
135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B호	×			○	중기
136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2-1호	×			○	중기
137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3호	×			○	중기
138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4호	×			○	중기
139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7호	×			○	중기
140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3-A호	○	소탄형	소토부	◎	중기
141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0호	○	외탄형		◎	중기
142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1호	○	외탄형		◎	중기
143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2호	○	외탄형	소토층	◎	중기
144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3호	○	외탄형		◎	중기
145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2호	○	외탄형	소토층	◎	중기
146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5-2호	○	외탄형		◎	중기
147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3-1호	○	외탄형	소토부	◎	중기
148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호	○	전탄형		◎	중기
149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4호	○	전탄형		◎	중기
150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15호	○	전탄형	소토층	◎	중기
151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3호	○	전탄형		◎	중기
152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5호	○	전탄형	소토부	◎	중기
153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4-7호	○	소탄형	소토부	○	중기
154	서남부지방	부여송국리57-1호	○	전탄형		○	중기
155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5호주거지	×			○	중기
156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5-1호주거지	×			○	중기
157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11호주거지	×			○	중기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기
158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3호주거지	×			○	중기
159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6호주거지	×			○	중기
160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8호주거지	×			○	중기
161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9호주거지	×			○	중기
162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7호주거지	○	전탄형		◎	중기
163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2호주거지	○	전탄형		○	중기
164	서남부지방	영암장천리1호주거지	○	전탄형		○	중기
165	서남부지방	이리부송동1호주거지	×			○	중기
166	서남부지방	이리부송동2호주거지	×			○	중기
167	서남부지방	이리부송동3호주거지	×			○	중기
168	서남부지방	전주여의동주거지	×			◎	중기
169	서남부지방	정주보화리주거지	○	?	소토덩어리	○	중기
170	서해북부	강화삼거리주거지	×			○	전기
171	영남동남부	경주천군동3호주거지	×			○	?
172	영남동남부	경주천군동4호주거지	○	소탄형	소토층	○	?
173	영남동남부	경주천군동5호주거지	○	소탄형	소토층	○	?
174	영남동남부	경주천군동1호주거지	○	외탄형	소토층	○	?
175	영남동남부	경주천군동2호주거지	○	외탄형	소토층	○	?
176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다-14	×			?	?
177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나-1	×			○	?
178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나-2	×			○	?
179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나-4	×			○	?
180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2	×			○	?
181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다-1	×			?	?
182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7	×			?	?
183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8	×			?	?
184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다-13	○	?	소토	◎	?
185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시골-1	○	?	소토	◎	?
186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나-3	○	?	소토층	○	?
187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1	○	외탄형	소토	○	?
188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9	○	외탄형		○	?
189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3	○	전탄형		○	?
190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다-3	○	?	소토층	?	?
191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10	○	?		?	?
192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11	○	?		?	?
193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 II-라-12	○	?		?	?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기
194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Ⅱ-라-4	○	?		?	?
195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Ⅱ-라-6	○	?	소토	?	?
196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Ⅱ-다-12	○	목탄층	소토층	?	?
197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Ⅱ-다-2	○	전탄형	소토덩어리	?	?
198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Ⅱ-다-8	○	전탄형		?	?
199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Ⅱ-다-9	○	전탄형	소토	?	?
200	영남동남부	경주황성동Ⅱ-라-5	○	전탄형		?	?
201	영남동남부	부산노포동주거지	×			○	?
202	영남동남부	울주양동3호주거지	○	?	소토	○	?
203	영남동남부	울주양동5호주거지	○	?		○	?
204	영남북부	대구월성동2호주거지	○	외탄형	소토층	◎	?
205	영남북부	대구월성동1호주거지	○	외탄형	소토층	○	?
206	영남북부	청도순지리주거지	○	외탄형	?	○	?
207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3호주거지	×			◎	?
208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1호주거지	×			○	?
209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3호주거지	×			○	?
210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23호주거지	×			○	?
211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호주거지	×			○	?
212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0호주거지	×			○	?
213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4호주거지	×			○	?
214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5호주거지	×			○	?
215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7호주거지	×			○	?
216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18호주거지	×			○	?
217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2호주거지	×			○	?
218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20호주거지	×			○	?
219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21호주거지	×			○	?
220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22호주거지	×			○	?
221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24호주거지	×			○	?
222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25호주거지	×			○	?
223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5호주거지	×			○	?
224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9호주거지	×			○	?
225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4호주거지	○	전탄형		○	?
226	영남서남부	거창대야리8호주거지	○	외탄형		○	?
227	영남서남부	진양대평리2호주거지	×	?		○	?
228	영남서남부	진양대평리3호주거지	×			○	?
229	영남서남부	진양대평리1호주거지	○	외탄형		◎	?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기
230	영남서남부	진양대평리4호주거지	○	?		○	?
231	영남서남부	창원신촌리10호주거지	×			○	?
232	영남서남부	창원신촌리12호주거지	×			○	?
233	영남서남부	창원신촌리17호주거지	×			○	?
234	영남서남부	함안도항리주거지	○	내탄형		○	?
235	영남서남부	합천봉계리13호주거지	×			○	?
236	영남서남부	합천봉계리16호주거지	×			○	?
237	영남서남부	합천봉계리5호주거지	×			○	?
238	영남서남부	합천저포리e-4호주거지	○	외탄형		◎	?
239	영남서남부	합천저포리e-1호주거지	○	?		○	?
240	영남서남부	합천저포리e-7호주거지	○	?		○	?
241	영남서남부	합천저포리e-5호주거지	○	소탄형		○	?
242	영남서남부	합천저포리e-2호주거지	○	외탄형		○	?
243	영남서남부	합천저포리e-6호주거지	○	전탄형		○	?
244	영남서남부	합천저포리e-3호주거지	○	전탄형	소토	○	?
245	임진강유역	파주교하리2호주거지	×			○	전기
246	임진강유역	파주교하리1호주거지	○	?		○	전기
247	임진강유역	파주당하,다울리주거지	×	목탄층		◎	중기
248	임진강유역	파주식현리주거지	○	외탄형		○	중기
249	임진강유역	파주옥석리주거지	○	?		○	중기
250	중서부지방	대전구성동2호주거지	○	?		○	중기
251	중서부지방	대전둔산동1호주거지	×			○	중기
252	중서부지방	대전둔산동2호주거지	×			○	중기
253	중서부지방	대전둔산동3호주거지	×			○	중기
254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6호주거지	×			◎	후기
255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4호주거지	×	목탄층		○	후기
256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1호주거지	×			○	후기
257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2호주거지	×			○	후기
258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7호주거지	×			○	후기
259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8호주거지	×			○	후기
260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9호주거지	×			○	후기
261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3호주거지	○	?	소토층	◎	후기
262	중서부지방	보령교성리5호주거지	○	?	소토층	○	후기
263	중서부지방	서산대로리주거지	○	?	?	○	전기
264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9호주거지	×			◎	중기
265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A호주거지	×			◎	중기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기
266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1호주거지	×			○	중기
267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2호주거지	×			○	중기
268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3호주거지	×			○	중기
269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4호주거지	×			○	중기
270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5호주거지	×			○	중기
271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6호주거지	×			○	중기
272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7호주거지	×			○	중기
273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8호주거지	×			○	중기
274	중서부지방	서산휴암리B호주거지	×			○	중기
275	중서부지방	안면도고남리1호주거지	○	외탄형		◎	중기
276	중서부지방	안면도고남리3호주거지	○	외탄형		◎	중기
277	중서부지방	안면도고남리2호주거지	○	?		○	중기
278	중서부지방	천안두정리주거지	○	외탄형		○	중기
279	중서부지방	천안청당동주거지	×		소토덩어리	○	전기
280	중서부지방	청원내수리주거지	×			○	중기
281	중서부지방	청주내곡동주거지	○	외탄형		○	중기
282	중서부지방	청주향정,외북동주거지	×			○	중기
283	한강유역	서울가락동2호주거지	×			○	중기
284	한강유역	서울가락동3호주거지	×			○	후기
285	한강유역	서울가락동4호주거지	×			○	후기
286	한강유역	서울가락리주거지	○	외탄형		◎	전기
287	한강유역	서울가락동1호주거지	○	?		○	중기
288	한강유역	서울가락동5호주거지	○	전탄형		○	중기
289	한강유역	서울역삼동주거지	○	외탄형		◎	전기
290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대-81년조사)	×			◎	중기
291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9호)	×			◎	중기
292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서6호)	×			◎	중기
293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서9호)	×			◎	중기
294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1호)	×			◎	중기
295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4호)	×			○	중기
296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10호)	×			○	중기
297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서3호)	×			○	중기
298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서5호)	×			○	중기
299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34호)	×			○	중기
300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3호)	×			○	중기
301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8호)	×			○	중기

번호	지역	주거지	화재	화재유형	소토유형	유물양	시기
302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5호)	×			○	중기
303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6호)	×			○	중기
304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성1호)	×			○	중기
305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서8호)	×			○	중기
306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05호)	×			○	중기
307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06호)	×			○	중기
308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07호)	×			○	중기
309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12호)	×			○	중기
310	한강유역	하남미사리(한5호)	×			○	중기
311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30호)	×			○	중기
312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36호)	×			○	중기
313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37호)	×			○	중기
314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경1호)	×			○	중기
315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경2호)	×			○	중기
316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경3호)	×			○	중기
317	한강유역	하남미사리(한18호)	×			○	중기
318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송2호)	×			○	중기
319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서7호)	○	외탄형		◎	중기
320	한강유역	하남미사리(서1호)	○	외탄형		○	중기
321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11호)	○	?		○	중기
322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15호)	○	?		○	중기
323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17호)	○	?		○	중기
324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18호)	○	?		○	중기
325	한강유역	하남미사리(고004호)	○	전탄형		○	중기
326	한강유역	하남미사리(한9호)	○	전탄형	소토층	○	중기
327	한강유역	하남미사리(한10호)	○	전탄형	소토층	○	중기
328	한강유역	하남수석리1호주거지	×			○	중기
329	한강유역	하남수석리6호주거지	×			○	중기
330	한강유역	하남수석리3호주거지	○	외탄형	소토층	○	후기
331	한강유역	하남수석리2호주거지	○	외탄형	소토층	○	후기
332	한강유역	하남수석리5호주거지	○	외탄형	소토층	○	후기
333	한강유역	하남수석리4호주거지	○	전탄형	소토층	○	후기
334	한강유역	서울명일동주거지	○	외탄형		○	중기

한편, 北韓地域의 無文土器時代 주거지의 火災率은 南韓地域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무산 호곡동유적, 영흥읍유적, 공귀리유적, 심귀리유적에서 住居址의 높은 火災率이 관찰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北韓地域에서는 角形土器文化圈 내에 포함되고 있는 지역의 火災率이 높다는 사실이다. 평양 남경유적인 경우, 22기의 주거지가 모두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角形土器를 출토하는 기타의 유적에서도 높은 화재율이 발견된다.<sup>5)</sup>

이렇게 남한지역보다 북한지역의 住居火災率이 높은 원인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노지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sup>6)</sup> 날씨가 추운 北韓地域에서 불의 사용이 南韓보다 잦아 그만큼 실화에 의한 火災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남한지역보다 지리적으로 中國에 더 가까운 북한지역이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동에 따른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바, 아마도 中國에서의 政治的 變動에 따라 유이민집단이 빈번하게 북한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戰亂의 狀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火災類型은 石野博信에 의해 분류된 바 있다.<sup>7)</sup> 氏에 의하면 炭火災와 燒土의 유존상태에 따라 일본의 화재주거지를 全炭全燒住居, 全炭外燒住居, 全炭內燒住居, 全炭少燒住居, 外炭外燒住居 등으로 火災類型을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 外炭內燒, 外炭少燒, 內炭全燒 內炭外燒, 少炭少燒 등의 다양한 火災 遺存狀況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발굴보고서에서 火災住居址의 목탄 및 소토의 유존상태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세한 분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소토는 주로 상부구조와 관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화목재의 위치 및 잔존 상태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全炭型, 外炭型, 內炭型, 少炭型 등으로 火災類型의 분류가 가능하다(圖面 1). 먼저 全炭型은 탄화목재가 住居址 내부 바닥면 전체에 깔린 것으로 扶餘松菊里 54-14號住居址, 靈岩 長川里 7號住居址<sup>8)</sup>, 溟州 坊內里 1號住居址<sup>9)</sup> 등이 여기에 속한다. 全炭型의 住居址는 대개 내부 퇴적층에 목탄편이 섞인 예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外炭型은 탄화목재가 住居址 벽체 직하 또는 이와 인접한 바닥면에서만 노출되는 화재 유형이다. 주로 벽체시설의 일부라 판단되는 탄화목재가 넘어져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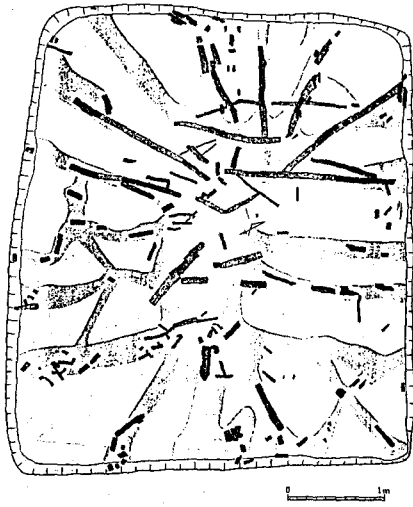
5) 後藤直, 1995. 「청동기시대의 집락과 청동기부장묘」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32~33.

6) 각 地域別 爐址 比率을 보면, 東北地方 90.3%, 西北地方 77.1%, 中部地方 36.8%, 南部地方 10% 등이다. 윤기준, 1985. 「앞 글」 (주 4-③) 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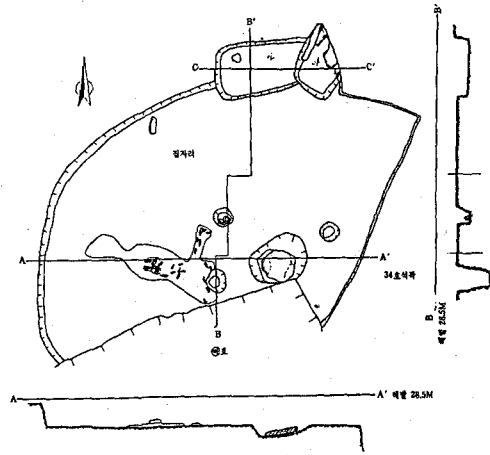
7) 石野博信, 1990. 『日本原始・古代住居の研究』 (吉川弘文館) 303~350.

8) 崔盛洛, 1986. 『長川里住居址』 (木浦大學校博物館)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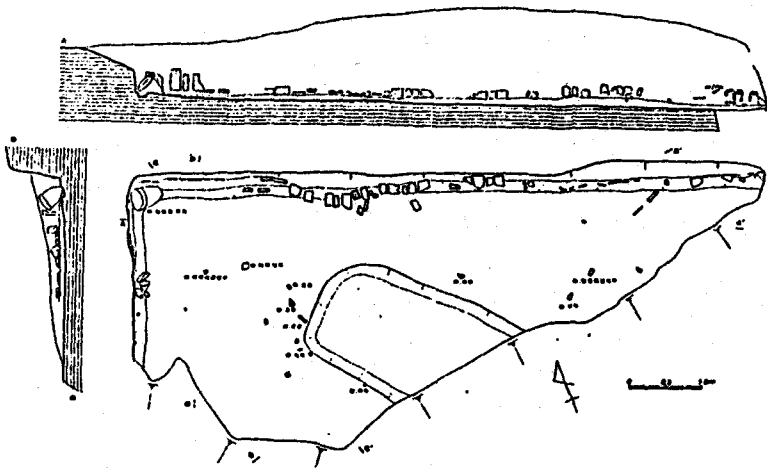
9) 白弘基, 1992. 『江原嶺東地方의 無文土器文化』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II』 (文化財研究所·江陵大學校博物館) 15~126.



(1) 全炭型(扶餘 松菊里 54-5號 住居址)



(2) 內炭型(咸安 道項里 住居址)



(3) 外炭型(大邱 月城洞 2號 住居址)

〈圖面 1〉 火災類型

서까래가 유존하는 경우에는 간혹 住居址 중앙부를 향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예도 보이고 있다. 大邱 月城洞 1, 2號住居址<sup>10)</sup> 가 모두 外炭型 火災住居址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火災類型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內炭型은 탄화목재가 住居址 중앙부 근처에서 확인되는 유형으로 비교적 예가 적은 편이다. 國立光州博物館이 조사한 昇州 大谷里 12號住居址<sup>11)</sup>, 昇州 牛山里 3號住居址<sup>12)</sup>, 咸安 道項里住居址<sup>13)</sup>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바닥에 깔려있는 탄화목재의 유존상태는 全炭型 내지 外炭型에 비해 좋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少炭型은 住居址 내부에서 탄화목재의 유존량이 적고 유존 위치도 불규칙적인 火災類型이다. 陝川 苧浦e地區 5號住居址<sup>14)</sup> 扶餘 松菊里 54-7號住居址 등이 少炭型의 火災住居址이다.

기타 住居址의 약 1/2정도의 범위에 탄화목재가 노출된 半炭型의 火災類型이 있다. 이러한 半炭型의 住居址는 극히 적은 수가 조사되었는데, 주로 경사가 약간 있는 구릉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半炭型의 火災住居址가 조사된 苧浦e地區에서는 산 경사면의 하단부가 유실된 住居址가 많기 때문에 이들 半炭型 住居址의 일부는 본래 全炭型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가운데 火災類型을 알 수 있는 총 78기의 住居址를 대상으로 火災類型을 살펴본 결과, 外炭型이 40기(5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全炭型 29기(37.2%), 少炭型 6기(7.7%), 內炭型 3기(3.8%)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火災類型은 發火場所, 火災時 바람의 方向, 火災程度와 관련을 맺고 있는 듯하며, 그 중에서도 發火場所가 火災類型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라 판단된다. 즉, 초기에 火災가 일어난 부분은 완전연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목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火災類型에 적용하면, 外炭型은 發火地點이 주로 住居址 중앙부인 火災類型이며, 內炭型은 住居址 주변부에서 발화된 火災類型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15)</sup>. 그렇다고 한다면, 無文土器時代 住居址의 50% 이상이 住居址 안쪽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0) 尹容鎮·李白圭, 1991. 『大邱月城洞先史遺蹟』(慶北大學校博物館).

11) 徐聲勳·成洛俊, 1989. 「大谷里 도롱·한실 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VI)』 412.

12) 이용조 외, 1988. 「우산리 곡천 유적」,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V』.

13) 崔憲燮, 1992. 「咸安 道項里 先史遺蹟」, 『韓國上古史學報』 10, 605~681.

14) 釜山大博物館, 1987. 『陝川苧浦里 E地區遺蹟』.

15) 石野博信, 1990. 『앞 책』(주 7) 324~328.

### Ⅲ. 無文土器時代 火災住居址의 樣相

金正基에 의하면 無文土器時代에는 정착생활이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친 주거생활이 이루어졌으며, 住居址 내부에서의 불의 사용빈도가 많아져 火災에 의한 주거지 폐기율이 新石器時代보다도 반수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있다. 또한 火災住居址의 火災 要因으로는 失火 이외에 이 시기 農耕의 一般化, 財産의 蓄積, 집락의 거대화에 따른 일종의 사회적 계급의 발생과 소부족사회의 형성 등으로 인해 각 지역간에 또는 소부족간에 분쟁에 의한 방화도 火災 要因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sup>16)</sup> 氏의 이러한 견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필자도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이다.

그런데 火災住居址의 증가가 無文土器時代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無文土器時代 中期를 전후로 하는 시점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 <表 2>는 남한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가운데 火災 與否를 알 수 있는 住居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表 2> 時期別 住居火災率

時 期	火災住居址 / 全體住居址	火 災 率
前 期	12/47	25.53%
中 期	57/163	34.97%
後 期	6/17	35.29%

여기에서 시기별 火災率을 보면, 대체로 中期 이후에 가서야 前期에 비해 火災率이 대략 1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後期에 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無文土器時代 住居址의 火災率을 살펴보면 <表 3>과 같다. 강원영동, 북한강, 임진강, 서해북부 등은 조사된 住居址 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은 그 火災率을 신빙 하기가 어렵다. 表에서 보면, 비교적 조사 예가 많은 영남지역의 火災率이 59.5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 내에서 비교적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불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火災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많다. 따라서 영남 지역에서의 火災는 실화보다는 방화로 인한 火災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다른 지역들은 17.3%에서 35.8%까지의 火災率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자료가 좀 더

16) 金正基, 1984. 「앞 글」 (주 4-①), 190~192.



〈表 3〉 地域別 住居火災率

地 域	江原 嶺東	南漢江	北漢江	漢江 流域	臨津江	西海 北部	中西部	西南部	寶城江	嶺南
火災住居/ 全體住居	7/14	6/25	1/2	18/52	3/5	0/1	9/33	19/53	13/75	81/136
火 災 率	50%	24%	50%	34.61%	60%	0%	27.27%	35.8%	17.3%	59.55%

증가되어야 만이 정확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화재율과 주거지의 입지조건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金陵 松竹里遺蹟<sup>17)</sup>과 같은 예외가 있지만, 구릉지보다 강 주변의 충적대지에 자리잡고 있는 住居址의 火災率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다. 가령 漢江流域의 漢沙里遺蹟<sup>18)</sup>은 총 38기의 住居址 가운데 9기(23.7%), 大也里遺蹟은 전체 20기의 住居址 가운데 2기(10%)가 火災住居址이며, 보성강변에 위치한 昇州 大谷里住居址인 경우에는 전체 70기의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중 15.7%인 11기의 住居址가 火災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 火災率의 차이가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후술할 松菊里類型의 住居址 역시 火災率이 낮기 때문에, 향후 住居址의 입지조건 및 기능과 화재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無文土器時代 中期에 들어가서 住居址의 火災率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 시점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漢江流域을 중심으로, 남한강, 임진강 등 孔烈土器文化 地域群이라 할 수 있는 중부지역권은 無文土器時代 前期에 전체 住居址 20기 가운데 9기가 火災에 의해 폐기되어 45%의 火災率을 보이는 반면, 中期에는 24.07%(54기의 住居址 가운데 13기 火災), 後期에는 50%(8기의 住居址 가운데 4기 火災)의 火災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前期에 火災率이 높은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차이가 보이지만, 이는 후술할, 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中期 이후 특히, 中期 후반대인 漢沙里遺蹟의 刻目突帶文土器 段階부터 後期에 이르기까지 火災率이 증가된 양상을 보여준다.

西南韓地方은 주로 松菊里類型의 文化 要素가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前期에는 총 19기의 住居址 가운데 火災로 인해 폐기된 住居址가 전혀 없는 반면, 中期에 들어가는 중반대의 扶餘 松菊里遺蹟과 후반대의 昇州 大谷里遺蹟(外反口綠土器가 출토되는 住居 段階) 등을 포함하여 37%(100기의 住居址 가운데 37기 火災)의 住居火災率을 보이고 있어, 이전 시기에

17) 啓明大學校博物館, 1994. 『金陵松竹里遺蹟』(特別展圖錄).

18)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 1994. 『漢沙里』1~5卷.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江原嶺東地域과 北漢江流域의 遺蹟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시기의 重要 遺蹟들이 보고가 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前期에는 火災에 의한 住居廢棄率이 33.33%(6기의 住居址 가운데 2기 火災)로 平均 火災率에 못미치던 것이 中期에는 60%(10기의 住居址 가운데 6기 火災)로 火災率이 증가하고 있다.

영남지방인 경우에는 필자가 판단하기에 기존의 편년안<sup>19)</sup>이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火災率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孔烈士器와 口脣刻目孔烈士器가 출토되는 苧浦e地區에서는 전체 7기의 住居址가 火災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火災率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慶州 隍城洞<sup>20)</sup> 大邱 月城洞<sup>21)</sup>, 慶州 千軍洞<sup>22)</sup> 등의 住居遺蹟을 비롯하여 無文樣의 深鉢形土器가 출토된 中期 후반대의 金陵 松竹里遺蹟<sup>23)</sup>에서는全體 住居址 62기 가운데 43기가 火災에 의해 폐기되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된 火災率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新石器時代 이후 無文土器時代에 들어오면서 대체로 中期를 전후로 하는 시기에 남한 각 지역에서 火災에 의한 住居廢棄率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前期에 예외적인 火災率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그렇다면 無文土器時代의 火災住居址의 증가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시기의 住居火災率의 增加는 이전부터 있었던 失火에 의한 火災의 증가도 있었겠지만, 이외에도 이 당시 각 집단간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放火性 火災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 시기의 住居址 火災 原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의 火災도 마찬가지로겠지만 火災는 크게 失火, 放火, 飛火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失火는 住居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不注意로 火災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 無文土器時代에는 新石器時代보다 불의 사용이 빈번하여 失火에 의한 火災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放火는 고의로 住居址에 불을 지른 경우인데, 여기에는 두가지 상황이 상정된다. 먼저 첫 번째로 自意的 放火로써 住居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자신의 住居址를 불태우는 경우이다. 가령 聚落 내에서 傳染病이 들어 취락의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주거지를 불태울 가능성이 높다. 이 때에는 사용하던 토

19) ① 安在晧, 1990.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碩士學位論文.

②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碩士學位論文.

20) ① 隍城洞遺蹟發掘調查團, 1990. 『慶州隍城洞遺蹟 第一次發掘調查 概報』(國立慶州博物館)

② 國立慶州博物館, 1991. 「慶州隍城洞遺蹟發掘調查略報告書 -住公아파트建立敷地 第2次地區-」.

21) 尹容鎮·李白圭, 1991. 『앞 책』(주 10).

22) 國立慶州博物館·慶州文化財研究所, 1994.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23) 啓明大學校博物館, 1994. 『앞 책』(주 17) 51~52.

기 및 석기 등과 같은 일상용구를 住居址 내부에 그대로 남겨둘 것으로 추측된다. 두번째로는 他意的 放火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집단간의 전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투과정에서 생긴 火災時에는 자신의 생활용구를 가지고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적의 습격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부분적인 일상용구의 유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飛火로 인해 최초의 火災住居址에서 근거리에 있는 住居址들이 火災를 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無文土器時代 당시의 火災住居址를 살펴보면, 대체로 인접한 2~3기의 住居址들이 火災를 당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住居址의 火元으로 야기된 飛火의 구체적인 예라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火災의 原因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생활용구를 가지고 나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가 또는 없었는가가 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음 <表 4>는 住居址 내부에서 출토된 생활용구의 양과 火災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出土 遺物量과 火災 與否를 알 수 있는 총 319기의 住居址를 대상으로 하였다.<sup>24)</sup>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火災住居址와 非火災住居址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非火災住居址에서는 당시의 사용하던 생활용구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10.6%인 반면, 火災住居址에서는 약 16%가 많은 26.2%가 생활용구가 그대로 住居址 바닥에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住居址 火災時에 생활용구를 가지고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전염병과 같이 염기적 이유에서 住居址 내부에 생활용구를 그대로 방치한 채, 불을 지른 경우 등 自·他意에 의한 火災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시기의 생활용구가 많이 남아 있는 火災住居址는 失火보다는 放火에 의한 火災住居址로 보아야 할 것 같다.

<表 4> 火災有無와 出土 遺物量의 相關關係

火災有無 \ 遺物量	적음	보통	많음	계
	非火災住居址	168基 (77.8%)	25基 (11.6%)	23基 (10.6%)
火災住居址	64基 (62.1%)	12基 (11.7%)	27基 (26.2%)	103基 (100%)

24) 住居址에서 출토된 遺物의 양에 대한 많고 적음의 기준은 다소 필자의 主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完形의 土器가 住居址 바닥에서 그대로 출토된 경우와 住居址 바닥에서 遺物이 출토되긴 하지만 半破된 土器인 경우, 그리고 바닥에서 少量의 土器片이 출토되는 경우를 각각 많음, 보통, 적음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유물의 多少에 의한 基準이라기 보다는 과연 당시의 無文土器人들이 住居址 廢棄時에 자신이 사용하던 土器를 가지고 移動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은 시기별로 火災住居址의 유물의 출토량을 파악하였다. 住居址의 대략의 시기와 출토유물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住居址 75기를 대상으로 火災住居址의 시기와 유물량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 <表 5>이다. 後期에는 조사 예가 적기 때문에 다소 정확한 결과치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로 無文土器時代 前期보다는 中期의 火災住居址에서 생활용구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無文土器時代 前期에서 中期로 이행하면서 失火보다는 放火로 인한 火災住居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5> 時期別 火災住居址의 出土 遺物量

時期 \ 遺物量	적음	보통	많음	합계
前期	8기 (66.7%)	2기 (16.7%)	2기 (16.6%)	12기 (100%)
中期	33기 (57.9%)	5기 (8.8%)	19기 (33.3%)	57기 (100%)
後期	3기 (50%)	2기 (33.3%)	1기 (16.7%)	6기 (100%)

한편 放火에 의한 火災率의 증가는 火災에 의한 住居址의 집단폐기율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이 당시의 전투양성이 각 집단의 住居地域에 대한 奇襲, 放火, 掠奪 형태를 띠었다고 하면, 火災에 의한 住居址의 同時期的 집단폐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당시의 취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住居 數에 대한 연구성과가 미비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발굴자료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0기 이상의 住居址가 한 지역에서 조사된 遺蹟을 중심으로 집단폐기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78개소의 住居遺蹟 중에서 10기 이상의 住居址가 확인된 유적은 15개소이지만, 이 가운데에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일부만이 보고되어 전체적인 火災樣相을 알 수 없는 유적을 제외하면 총 9개소의 住居遺蹟이 검토대상이 된다.

먼저 前期 後半代에 속하고 있는 驪州 欣岩里遺蹟<sup>25)</sup>에서는 모두 16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火災有無를 알 수 있는 住居址는 12기이다. 火災의 흔적이 보이는 住居址는 4기인 33.33%로 無文土器時代 平均火災率에 못미치는 火災率을 보이고 있다. 더우기 火災住居址

25) ① 서울대박물관, 1973. 『欣岩里住居址』,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4책.

② 서울대박물관, 1974. 『欣岩里住居址』,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5책.

③ 서울대박물관, 1976. 『欣岩里住居址』 3,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7책.

④ 서울대박물관, 1976. 『欣岩里住居址』 4,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8책.

가운데에는 일부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飛火에 의한 火災 可能性도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中期에 해당되는 住居遺蹟을 살펴보면, 총 8개의 住居遺蹟이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中期의 어느 시점부터 높은 集團火災率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부지역권에 속하는 河南 漢沙里住居址의 경우, 中期 전반대, 중반대에 포함되는 孔烈士器 類型의 長方形住居址에서는 전체 32기 가운데에 3기만이 火災로 인해 폐기되어 낮은 集團火災率을 보이지만, 刻目 突帶文土器가 출토되는 方形住居址에서는 6기의 住居址가 모두 火災로 인해 폐기되어 漢江 流域에 있어서 中期 후반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 집단간의 알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西南韓地方인 경우에는 中期 前半代인 瑞山 休岩里遺蹟<sup>26)</sup>과 中期 中半代인 扶餘 松菊里遺蹟, 中期 後半代의 靈岩 長川里遺蹟, 그리고 前期와 中期에 걸친 昇州 大谷里遺蹟이 검토 대상이 되는데, 대체로 中期 중반대부터 높은 集團火災率을 보이고 있다. 먼저 瑞山 休岩里遺蹟인 경우에는 총 11기의 住居址 가운데 火災로 인해서 폐기된 住居址는 단 한 基도 보이지 않는 반면, 松菊里遺蹟부터는 높은 集團火災率이 확인된다. 松菊里遺蹟의 총 火災에 의한 廢棄率은 41.66%(36基의 住居址 가운데 15基 火災)에 불과하지만 이 중 (長)方形住居址의 火災率은 전체 21기 중에 13기가 火災에 의해 폐기되어 61.9%의 높은 火災率을 보인다. 다만 (橢)圓形住居址에서는 전체 13기 중에 火災住居址는 단 1기 뿐으로 7.69%의 火災率을 보이고 있는데<sup>27)</sup> 이는 圓形住居址의 기능 내지 용도와 관련하여 火災率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松菊里型 圓形住居址가 일부 지역에서는 정주용을 목적으로 한 住居形態이지만, 많은 경우 臨時性이 강한 여름용 계절캠핑이거나 도피성 住居이었을 가능성을 뒷바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遺蹟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가령 大谷里遺蹟의 圓形住居址에서는 火災로 인한 폐기가 거의 없으며, 居昌 大也里遺蹟에서도 火災로 인한 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靈岩 長川里遺蹟에서만 30%의 火災率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無文土器時代 平均火災率에 못미치고 있다. 최근에 조사된 보령 관창리유적에서도 火災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러한 非火災의 양상과 圓形住居址의 기능 사이에는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6) 徐五善·權五榮, 1990. 『休岩里』(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22冊).

27) 한편, 金吉植은 조사가 이루어진 총 21기의 方形住居址 가운데 19기가 火災에 의해 廢棄되고, 圓形住居址는 전체 13基 가운데 3基가 화재에 의해 폐기되었다고 하고 있어, 火災住居址 수에 있어 필자의 조사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다.

金吉植, 1994. 「앞 글」(주 3) 186.

그러나 火災에 의해 廢棄된 住居址 수는 앞에서 언급했던 火災 住居址 判斷 基準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圓形住居址는 55地區 2號住居址만이 火災에 의한 廢棄가 확실하며, 나머지 50地區 2號住居址나 55地區 1號住居址는 火災로 인해 폐기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昇州 大谷里遺蹟에서는 無文土器時代 住居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火災率이 15.94%에 이르지만, 이 중에 출토유물을 통해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住居址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中期 以後로 集團火災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孔烈土器 내지 深鉢形土器만이 출토되는 前期의 17기 住居址에서는 火災住居址가 보이지 않은 반면, 外反口緣土器가 공반되는 中期의 住居址에서는 32%의 火災率(22기의 住居址 가운데 7기 火災)을 보이고 있어 中期 이후 부터 集團火災率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嶺南地方에서도 中期의 住居遺蹟에서 높은 集團火災率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慶州 隍城洞遺蹟에서는 전체 25기의 無文土器時代 住居址 가운데 17기의 住居址가 火災痕迹이 있어 68%의 높은 集團火災率을 보이고 있다. 또한 隍城洞遺蹟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金陵 松竹里遺蹟에서는 69.35%이라는 높은 集團火災率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南韓地方에서는 無文土器時代 中期를 전후로 해서 個別 火災 뿐만 아니라 火災에 의한 집단폐기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火災에 의한 집단폐기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비율이 높을 수록 人爲的인 火災, 즉 放火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 집단간의 잦은 충돌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된다.

#### IV. 中期 無文土器時代 火災住居址의 增加와 그 意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내 南韓地方에서는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로 火災에 의한 住居廢棄率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火災의 증가 시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中期 以後의 火災住居址에서 당시의 사용하던 생활용구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증가한 점, 그리고 火災에 의한 집단폐기율이 前期에 비해 증가한 점 등을 통해, 住居火災率의 증가는 이전의 실화에 의한 火災住居址 외에도 放火에 의한 火災住居址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無文土器時代에서 확인된 이러한 住居火災率의 변화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시기 각 집단간의 긴장관계 내지 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역별 집단간의 긴장관계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부지역권에서는 無文土器時代 前期에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의 文化가 접촉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마찰이 부분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높은 火災率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마찰은 비교적 한시적이고 소규모의 형태를 띤다고 판단되는데, 前期 후반대의 驪州 欣岩里遺蹟 이후로는 차츰 火災率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地域에서의 中期 以後에 본격화된 집단간의 갈등과는 성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중

부지역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취락의 발전에 따른 각 집단간의 갈등이지만 중부지역권에서는 異質인 두 文化의 접촉에서 파생된 갈등의 형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양상은 각 住居址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가령 동북지방의 孔烈土器文化와 서북지방의 팽이형土器文化가 공존하던 前期 전반대에는 출토유물상 두 가지 계통의 유물이 서로 공반되지 않은 화재주거지가 많다. 그러나 두 계통의 유물이 본격적으로 공반되는 欣岩里遺蹟 段階부터, 孔烈土器文化 위주로 齊一性을 띄어가는 漢沙里遺蹟 段階까지는 점차 火災率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집단이 孔烈土器 集團을 중심으로 동화되어 가면서 점차 안정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漢沙里遺蹟의 無文土器時代 住居址는 크게 孔烈土器文化 類型的 住居址와 刻目突帶文土器文化 類型的 住居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刻目突帶文土器文化 類型的에 속하는 住居址는 중복관계에 있어서 孔烈土器文化 類型的의 住居址보다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sup>28)</sup>, 시기는 中期 후반대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住居址는 평면형태가 방형인 점, 그리고 爐址는 圍石式이며 孔烈土器文化 類型的의 住居址가 강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반면, 6기의 住居址가 4~5m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밀집분포하고 있는 점에서 孔烈土器文化 類型的의 住居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6기의 住居址가 전면적으로 火災를 당한 흔적을 보이고 있어 孔烈土器人들과의 갈등관계가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sup>29)</sup> 이후 後期에 접어들면서 可樂洞,<sup>30)</sup> 水石里住居址<sup>31)</sup>에서의 예와 같이 계속적으로 住居火災率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漢沙里遺蹟 原三國時代 일부 住居址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中期 후반대부터는 새로운 刻目突帶文土器文化와 粘土帶土器文化의 등장과 함께 火災住居址가 증가하고 있어 外來集團과 在地集團과의 알력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알력관계는 중부지역권이 백제에 통합되는 직전 段階인 원삼국시대에 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sup>32)</sup>

28) 尹世英·李弘鍾, 1994. 『漢沙里』高麗大學校博物館 篇, 第5卷.

漢沙里遺蹟의 孔烈土器 住居址와 刻目突帶文土器 住居址 사이의 先後關係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잠정적으로 高麗大 發掘責任者의 견해를 따른다.

崔鍾澤, 1994. 「漢沙里遺蹟의 住居樣相과 變遷」, 『마을의 考古學』,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111~112.

29) 尹世英, 李弘鍾, 1994. 「알 책」(주 28) 329.

30) 잠실지구유적발굴조사단, 1977. 「잠실지구유적발굴조사보고」, 『한국고고학보』 3, 35~40·73~75.

31) 金元龍, 1966. 「水石里 先史時代 聚落住居址」, 『美術資料』 11호.

32) 漢沙里遺蹟에서 조사된 原三國時代 住居址를 살펴보면, 총 22기의 住居址가 대체로 평면적인 분포에 있어서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한양대 조사구역과 송실대 조사구역에 분포하고 있는 住居址는 총 9기로써 이 중에 火災로 폐기된 住居址는 모두 6기(火災率 66.66%)이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구역 일부와 고려대 조사구역에 분포하고 있는 13기의 住居址는 모두 火災를 입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유물 출토량에 있어서 두 지역 사이에 차이가 보이는데, 전자에서는 한양대 1호 주거지만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반면에

西南韓地方에서는 中期 중반대부터 집단간의 알력이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遺蹟으로 扶餘 松菊里遺蹟을 손꼽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발굴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적어도 세차례 이상의 放火性 火災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내용에 의하면, 松菊里遺蹟 54지구와 57지구에 위치한 方形住居址가 축조되기 이전에 대지의 사면을 인위적으로 흙으로 메워 대지조성작업을 하였는데, 이 때 火災住居址의 폐기물이 대량으로 이용되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方形住居址가 축조되기 이전에 火災로 폐기된 住居址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초창기에 해당되는 住居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報告者는 方形住居址로 추정하고 있다.<sup>33)</sup> 이후의 放火性 火災의 증거는 方形住居址 段階와 長方形住居址 段階에서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長方形住居址 段階와 方形住居址 段階 사이에는 火災率 및 火災樣相에 있어 차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단간의 긴장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方形住居址 段階의 火災樣相을 보면, <圖面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火災率이 長方形住居址 段階에 비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火災住居址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方形住居址 段階의 火災는 失火와 이로 인한 飛火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方形住居址인 11號住居址에서 탄화미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그 당시 중요한 식량마저 가지고 나갈 수 없었던, 타집단의 기습이 추측된다. 한편 方形住居址 段階와 시기적으로 관련있는 54지구의 木柵施設도 전체적으로 火災를 입었음이 주목되는데, 이 역시 전투과정에서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長方形住居址 段階의 火災樣相은 火災率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住居址 등이 全炭型의 火災類型인 점, 그리고 실생활용기가 住居址 내부에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전란의 규모는 이전 段階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 段階의 1號住居址에서 탄화미가 출토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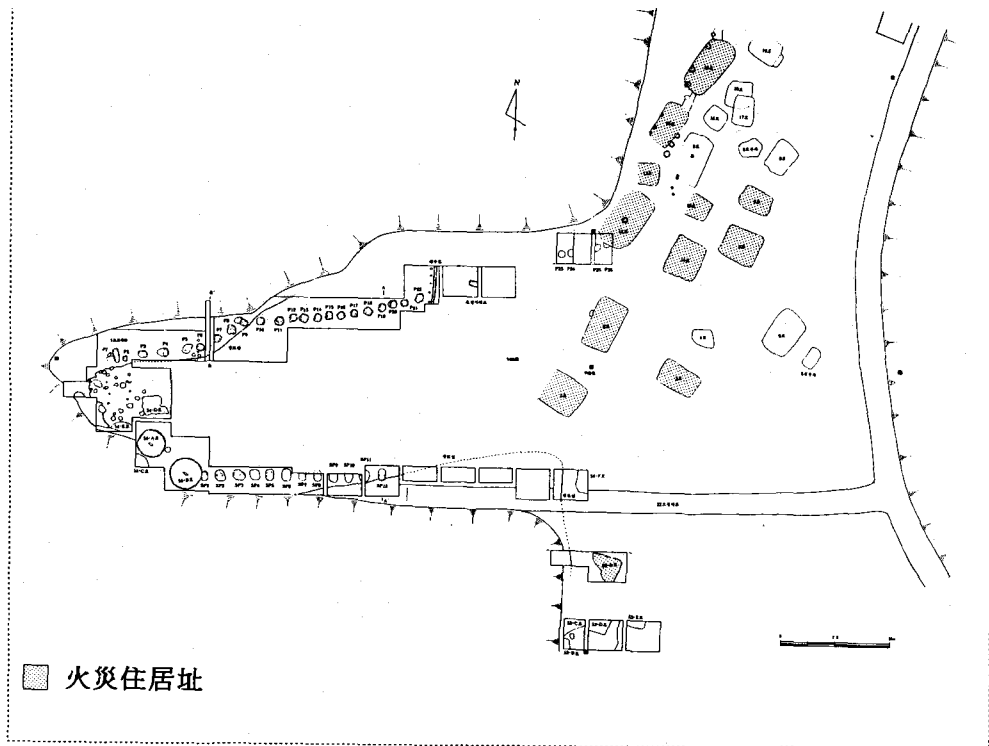
昇州 大谷里遺蹟에서는 外反口緣土器가 출토되는 無文土器時代 中期에 火災가 집중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遺蹟에서의 無文土器時代 火災住居址는 모두 11기이나 이 중 7기의 住居址만이 출토유물을 통해서 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火災가 발생한 住居址는 모두 長方形住居址인데, 이 중 深鉢形土器와 外反口緣土器가 공반된 住居址는 서울대 58號住居址, 光州博物館 12號住居址로 2기뿐이고, 나머지 5기(서울대 28號, 光州博物館 7號, 10號, 18號,

---

후자에서는 유물이 적은 住居址는 4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생활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두 주거군의 폐기과정에 관련된 자료의 相異함은 두 주거군이 동시기에 점유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는 필자 자신이 遺物이나 住居址 평면형태의 검토를 통해서 두 住居群의 先後關係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고려대 조사구역의 住居址에서 출토된 토기에 있어 일부 백제시대의 타날문이 있는 발형토기가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주거군이 한양대, 송실대 조사구역에서의 주거군보다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原三國時代 이후 初期百濟에 이르는 동안, 聚落이 강 상류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33) 金吉植, 1994. 「앞 글」 (주 3)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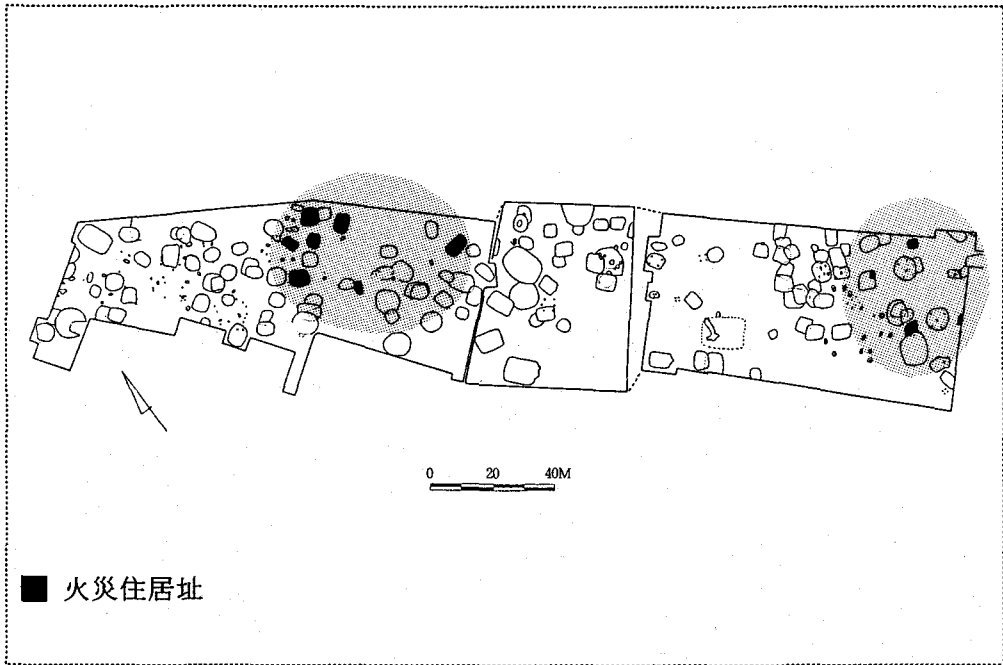




〈圖面 2〉 扶餘 松菊里遺蹟 火災住居址

48號住居址)는 모두 外反口緣土器만이 출토되는 住居址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체로 이 지역에서는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에 火災가 빈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圖面 3〉에서 알 수 있듯이, 火災가 발생한 住居址들이 일정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同時期的인 火災樣相으로 파악되며, 이는 大谷里遺蹟에서 無文土器時代 中期後半의 住居址 段階로 가면서 집단간의 알력이 점차 구체적인 양상을 띄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위의 松菊里遺蹟과 大谷里遺蹟을 통해 西南韓地方의 갈등양상을 보면, 대체로 집단간의 알력은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로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火災住居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地域的 基盤이 다른 집단이나 文化的 系統이 다른 집단간의 갈등이기 보다는 같은 地域 내에서 같은 文化를 공유하면서 서로 競爭關係에 있는 집단간의 갈등이라 생각된다.



〈圖面 3〉 昇州 大谷里遺蹟 火災住居址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집단간의 갈등관계의 原因에 대한 설명은 中期 社會의 文化 變動過程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安在晧는 松菊里型 圓形住居址에서 長方形住居址로의 도피적 이동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原因을 집단간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無文土器時代 中期가 松菊里文化의 유입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집단간의 갈등은 기존의 文化와 새로운 松菊里類型의 文化의 교체로서 나타나는 집단간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sup>34)</sup>.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있어서 갈등관계의 구체적인 원인은 문화교체에 따른 영향이기 보다는 집단의 발전에 따른 경쟁관계와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松菊里型 圓形住居址가 임시성이 강한 住居形態는 분명하지만, 松菊里型 圓形住居址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逃避 以前의 住居址임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35)</sup> 특히 氏가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예시한 松菊里와 大

34) 安在晧, 1992. 「앞 글」 (주 2) 30~32.

35) 만약 圓形住居址의 성격이 逃避의 移動性이 강하다고 한다면, 住居址 内部에서 일상용기가 그대로 출토되는 比率이 높다거나, 火災에 의한 廢棄率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와 다르다. 따라서 송국리형 원형주거지는 ① 住居址 築造의 容易함, ② 出土遺物의 貧弱性, ③ 住居址 内部에 爐址의 全無, ④ 낮은 住居火災率 등으로 해서 共同的 經濟的 行爲를 수행하는 여름용 계절캠프이거나 타집단의 기습적인 공격시, 정착용 거주지를 離脫한 이후에 축조한 臨時性 家屋일 것이라 판단된다.

谷里遺蹟에서의 구체적인 설명은 비교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가령 大谷里遺蹟 I期에서 孔烈土器 내지 深鉢形土器가 출토되는 圓形住居址는 外反口緣土器가 출토되는 II期の 長方形住居址보다 규모에 있어 큰 양상을 보이는데, I期는 臨時性 聚落이고 II期는 定着을 목적으로 한 聚落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松菊里遺蹟에서도 마찬가지로 54地區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일단 圓形住居址와 長方形住居址의 先後관계가 氏의 주장대로라 해도, 긴급시에 저구릉지의 圓形住居址에서 구릉의 정상부쪽에 있는 長方形住居址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실제의 이동거리와 이동고도(10M)를 고려해 볼 때, 어느 지역으로 이탈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하여간 이러한 松菊里型 圓形住居址가 갈등관계의 구체적인 증거인 바, 松菊里型 圓形住居址의 지속기간이 바로 집단간의 알력이 일시적으로 존재한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기존의 文化와 松菊里 類型의 文化의 交替期처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安在晔의 견해이다.

이 時期의 갈등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防禦性 環濠集落이 있다. 특히 中期에 해당되는 扶餘 松菊里遺蹟, 蔚州 檢丹里遺蹟에서는 環濠集落의 구체적인 예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가는 시점에 있다.<sup>36)</sup> 그런데 대개 이러한 방어집락의 출현을 農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鄭澄元은 中期에 보이는 松菊里遺蹟과 같은 구릉성 입지조건이 前期와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출현을 수도경작에 필요한 가경지의 부족, 수리시설의 확보를 둘러싼 지역간의 긴장관계와 관련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나타나는 環濠集落과 支石墓에서 출토되는 大量的 殺傷用 石鏃은 바로 이러한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예라 하고 있다.<sup>37)</sup>

중국과 한국, 일본의 방어집락을 검토한 崔鍾圭는 韓半島 內에서의 방어집락의 출현을 無文土器時代로 보고 있으며, 이의 출현 계기를 食糧採集 段階가 끝나고 生産段階에 들어서서 비로소 가능했다고 하고 있다. 특히 氏는 食糧生産 段階부터는 剩餘生産物의 蓄積이 가능해지면,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재산이 출현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집단간의 분쟁이 야기되었다고 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火災住居址의 火災原因에 대한 김정기의 견해와 같이 한다.<sup>39)</sup>

그러나 사유재산의 형성이 이전의 新石器時代에는 없었는가 하는 의문을 차치해 두더라도 개인 내지 집단의 사유재산의 형성이 집단간의 분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食糧生産 段階라 하더라도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燒畑雜穀栽培 등의 移動農耕이나 根莖栽培에 의존하는 段階의 社會에서 이러한 방어집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6) 崔鍾圭, 1993. 「東洋의 防禦集落」 『松菊里』 (國立公州博物館) V, 201~213.

37) 鄭澄元, 1991. 「앞 글」 (주 1) 37~38.

38) 崔鍾圭, 1993. 「앞 글」 (주 36) 205.

39) 金正基, 1984. 「앞 글」 (주 4-①).

그래서 방어집락의 출현은 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곡물재배의 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sup>40)</sup>

앞에서 언급한 火災住居址, 防禦集落 이외에도 埋葬된 人骨 내에 박힌 劍·戈·矛·鏃 등의 戰鬥用 武器의 선단부 파편도 無文土器時代의 집락간의 알력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라 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福岡縣 新町遺蹟에서 야요이시대 早期에서 前期에 걸친 埋葬 遺構들이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24호묘에 안치된 人骨은 좌측 대퇴골에 有莖式石鏃이 박힌 채로 노출되어 타집단과의 충돌로 인한 犠牲者로 추측되고 있다.<sup>41)</sup> 또한 야요이시대 中期 初頭에서 中期 中頃に 해당되는 福岡縣 永岡遺蹟에서는 銅劍의 선단부가 박힌 성인 남자의 人骨이 甕棺에 埋葬된 상태로 발견되어 집단간의 전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 적극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人骨의 출토예를 고려해 볼 때, 비록 인골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劍·戈·矛·鏃과 같은 戰鬥用 武器의 선단부가 출토된 墳墓 역시 戰鬥 犠牲者의 墓로 理解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sup>42)</sup> 橋口達也의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위와 같이 戰鬥用 武器의 선단부가 墳墓 내에서 출토된 예는 1985년까지 36遺蹟 53例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대체로 야요이시대 前期 後半부터 中期 前半에 집중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墳墓의 人骨 출토양상은 稻作 初期, 低濕地를 중심으로 전개된 稻作農耕이 인구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취락이 저구릉으로 진출함에 따라 土地와 湧水를 둘러싸고 집단간의 전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43)</sup>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 戰鬥用 武器가 박힌 人骨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支石墓 내에서 발견되는 石劍과 石鏃의 첨단부 파편을 통해 피장자를 戰死者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주목된다. 林炳泰는 주암댐 수몰지구에서 조사된 支石墓 가운데 石劍, 石鏃의 첨단부 파편과 石劍의 柄部片이 출토되는 遺蹟이 6個所 19例임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유물의 출토상황을 보여주는 支石墓의 피장자를 전투과정에서 피살된 犠牲者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서는 全南地方의 支石墓를 戰死者들의 무덤으로 이해하여 靑銅器時代 後期에 접어들면서 戰爭이 급등했다고 하고 있다.<sup>44)</sup>

한편, 앞에서 언급한 新町遺蹟 24호묘에는 안치된 인골의 다리 사이에 크기 51×28cm, 길이 22cm의 구덩이가 검출되었는데 구덩이 내부에서는 墳墓의 피장자와는 다른 人骨의 치

40) 石黒立人, 1990. 「濠のある集落とない集落」 『季刊考古學』 第31號, 20~21.

41) 橋口達也 外, 1987. 『新町遺蹟』 志摩町文化財調査報告 第7集.

42) ① 橋口達也, 1987. 「權力機構の發生と展開 - 彌生時代に於ける「クニ」の成立をめぐる -」, 第3回 九州-釜山考古學合同研究會 發表資料.

② 橋口達也, 1995. 「彌生時代の戦い」 『考古學研究』 通卷165號, 54~77.

43) 橋口達也, 1987. 「앞 글」 (주 42-①).

44) 林炳泰, 1995. 「후기 지석묘사회의 성격」 『東아시아의 청동기문화-묘제와 주거』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아가 발견되었다. 이는 타집단과의 전투로 인하여 犧牲者가 발생하자 報復으로써 상대 집단의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의 머리를 잘라 埋葬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와 같은 소형 구덩이는 일본에서 주로 야요이시대 前期에서 中期 前半의 木棺墓 내지 土壙墓에서 발견되는데, 한반도의 경우에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中西部地方의 墳墓에서 이와 유사한 예가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保寧 관창리<sup>45)</sup>·館山里<sup>46)</sup>·公州 南山里<sup>47)</sup>·舒川 烏石里遺蹟<sup>48)</sup>의 石蓋土壙墓, 石棺墓, 土壙墓에서 이러한 소형 구덩이가 관찰된다. 中西部地方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墳墓들은 住居址에 인접한 集團墓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墳墓 내에 副葬遺物이 적은 薄葬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無文土器時代 中期를 전후로 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조사된 소형 구덩이는 대체로 墓 短壁쪽에 바짝 붙여서 시설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아무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아 기능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時代的 雰圍氣의 공통점, 그리고 구덩이 형태의 유사점에서 볼 때, 일본과 같이 報復行爲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烏石里遺蹟에서 조사된 無文土器時代 墳墓 25기 가운데 19기가 소형 구덩이가 시설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요컨대 中西部地方에서 조사된 土壙墓 및 石棺墓와 全南地方에서 조사된 支石墓로 볼 때, 대략 無文土器時代 中期를 시점으로 집단간의 전투행위가 빈번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열악해진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유리한 조건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이 결국은 집단간의 끊임없는 전투를 발생시켰던 것으로 파악된다.<sup>49)</sup>

國家段階 社會의 출현과 관련하여 전쟁이 주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는 이론이 있다. 이러한 이론의 본격적인 제안자인 로버트 카네이로는 영역의 한계와 인구압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통해 전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전쟁의 연속과정 속에서 국가가 출현한다고 하고 있다.<sup>50)</sup> 카네이로의 이론은 우리의 初期國家 形成過程과 관련하여 꽤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無文土器時代의 어느 시점부터 南韓地方에서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많지만, 前期 後半代에 속하는 欣岩里遺蹟, 그리고 中期에 해당하는 扶餘 松菊里遺蹟, 蔚州 檢丹里遺蹟<sup>51)</sup>, 慶州 隍城洞遺蹟, 金陵 松竹里遺蹟, 昇州 大谷里遺蹟의 예서와 같이, 한 지역에 위치한 住居 數와 密集度를 고려해 볼 때, 前期 後半에서 中期에 이르는 동안 人口의 급속한 증가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人口의 增加는 農耕技術의 發達, 生産力의 增

45) 아주대학교박물관, 1996. 「보령 관창리 유적 A, F지구 발굴조사 개요」 『科技考古研究』 創刊號.

46) 尹世英·李弘鍾, 1996. 『館山里遺蹟(1)』 (高麗大學校 埋藏文化研究所).

47) 尹武炳, 1987. 「公州郡 灘川面 南山里 先史墳墓群」 『三佛 金元龍教授 停年退任 紀念論叢 I』 (考古學 篇).

48) 李南奭, 1996. 『烏石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49) 林炳泰, 1995. 「앞 글」 (주 44), 17.

50) 조나단하스(崔夢龍 譯), 1989. 『原始國家의 進化』 (民音社).

51) 安在皓, 1990. 「蔚州檢丹里遺蹟 發掘調查概報」 (第14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大와 함께 계속적으로 사회를 탄력있게 변화시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 集團 內에서의 인구증가는 이미 개간된 경작지에 대한 集約度를 높임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만, 경작을 통해서 얻어진 생산량과 인구와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또 다른 경작지의 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포화된 인구압은 새로운 可耕地와 水資源을 위한 타 집단과의 갈등으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집단간의 갈등은 이러한 可耕地 및 水資源만을 대상으로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시의 農耕形態 및 技術 그리고 規模를 감안한다면, 農耕만으로 한 집단의 구성인원을 부양하는데 충분하였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경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자연환경에 대한 식량자원의 의존도는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집단간의 갈등은 可耕地 및 水資源은 물론이고 기타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쟁탈전의 양상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제한된 가용자원과 인구압의 불균형 이외에도 한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집단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정체성 또한 집단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蔚州 檢丹里遺蹟과 扶餘 松菊里遺蹟에서의 環濠는 그 자체가 방어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아울러 環濠 내부에서 생활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環濠라는 구체적인 매개체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環濠 밖의 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집단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環濠와 마찬가지로 松菊里遺蹟과 溟沙里遺蹟에서 조사된 木柵 또한 이러한 高揚된 集團意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 남한 내의 각 집단간의 알력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의 제한, 집단구성원의 부양력을 초과한 인구증가, 타집단과 자신의 집단을 구별하는 고양된 正體性에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간의 갈등의 대체적인 양상은 재지집단과 靑銅器를 소유한 外來集團과의 갈등이기 보다는 無文土器時代 前期 後半代 이후부터 남한 각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집단간의 갈등으로 여겨진다. 일부에서는 松菊里文化를 外來文化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松菊里 類型의 文化를 外來系로 보는 認識의 基底에는 遼寧式銅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南韓地方에서의 靑銅器 登場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성과를 보면, 靑銅器가 생산도구 또는 무기구로써 기존의 사회를 새로운 발전된 사회로 유도했다기 보다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된 생산력의 증대와 인구증가 그리고 이에 수반된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2)</sup> 이는 생산도구로써의 靑銅器 출토예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무기로써의 기능이 石器나 木器로 된 무기류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로 본격화되는 집단간의 갈등은 農耕의 발달과 人口의 增加를 토대로 성장한

52) 金鐘一, 1993. 「韓國 中西部地域 靑銅遺蹟·遺物の 分布와 祭儀圈」(서울대석사학위논문).

재지집단간의 갈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先史時代 집단간의 葛藤關係와 이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전쟁은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기존의 평등상태에 있었던 구성원들의 관계가 점차 전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투지휘자가 유력자로 등장함으로써 계층화된 사회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집단 내부에서의 계층화과정은 특히 無文土器時代 墓制의 변천과정에서 잘 파악되고 있다. 최종규에 따르면, 無文土器時代 前半代의 墓制인 支石墓에서는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유력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後半代에 들어가면서 松菊里 銅劍墓에서와 같이 有力個人의 出現이 상정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sup>53)</sup> 이러한 유력개인의 무덤은 출토유물에 있어 靑銅器가 부장되어 있으며, 집단구성원들의 공동묘지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單獨墓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취락의 일반구성원과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계층분화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의 동검묘의 주인공은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전투지휘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의 支石墓 또는 石棺墓에서 출토되는 細長形鏃과 磨製石劍은 바로 피장자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기 최초의 집단내부의 계층화과정은 전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투지휘자로 급부상한 유력개인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두번째로 이 시기의 집단간의 전쟁은 각 지역에 할거하고 있는 집단을 보다 큰 사회구성체로 통합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합과정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은 아니며, 전시상황에 있는 열세의 제2 또는 제3의 세력집단간의 연합을 통해서도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無文土器時代 中期 이후에 放火에 의한 火災住居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시기 집단간의 알력이 집단 내부로는 계층분화를 유도하고 집단간에는 보다 큰 사회조직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無文土器時代 前期와 中期의 火災比率에서 알 수 있듯이, 이 時期의 戰爭樣相은 각 지역간의 全面戰이기 보다는 각 지역내에서의 局地戰의 形勢를 띠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鐵器가 등장하는 原三國時代 이후에 가서야 집단간 또는 지역간의 武力衝突이 初期國家와 관련된, 구체적인 社會變化의 要因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53) 崔鍾圭, 1991.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한국고대사논총』 2, 144~146.

## V. 맺음말

이상, 中期 無文土器時代 社會의 性格을 밝혀보기 위한 노력으로 火災住居址와 집단간의 葛藤關係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火災住居址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發掘過程에서 火災樣相에 대한 觀察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연유로 분석 결과에 대한 信賴度는 높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굴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中期 이후 火災住居址의 發生 頻度는 이전 時期에 비해 커다란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地域, 時期, 그리고 住居址의 기능과 입지조건에 따라서 火災率의 차이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이는 향후 발굴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관찰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